<說苑>

韓國馬產에 關한 歷史的 硏究

—李朝時代의 馬產—

The Historical Study of the Horse Husbandry in Korea

The 3rd Report. The Horse Husbandry in Lee dynasty

姜 晃 熙

(1) 序 言

高麗王朝와 李氏朝鮮의 交替는 麗末의 昏政으로 因하여 李太祖(李成桂)를 中心人物로 하여 이르킨 政權交替에 不過하였을 뿐 社會, 文化 等의 諸制度에 있어서 本質的인 差異는 없었던 것이므로 產馬政策에 있어서도 高麗의 그것과 別般 다를 것은 없다.

即 如前히 封建階級社會이었고 中國에 對한 事大主義國家였던 關係로 나라에서 國王의 即位나 世子 册封等의 節次에 있어서도 中國의 認准을 얻어야 하였던 까닭으로, 國家的으로 모든 것이 그의 影響을 받게 되고, 產業分野에 있어서도 軍政의 主流를 形成하는 馬政은 中國을 爲하여 隆盛하였고 또 그때문에 衰亡해 버린 느낌이 있다.

그러나 이와같은 環境과 制約下에서도 그 時代에 따라서, 國政의 善惡, 社會環境의 如何에 依하여 그 盛衰는 勿論 있는것이지만 馬政에 關한 限, 이것이 한낱 產業이라기보다 國防的 見地에서 가장 重要한 武器로서, 그 盛衰는 곧 國家의 運命을 直接的으로 左右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李朝 五百年을 通하여 가장 重要한 國政의 하나로 認識되고 또 힘써온 것이 事實이다.

李朝時代의 馬政은 高麗末의 昏政과, 倭寇로 因하여 馬產이 거의 滅亡狀態에 빠지고 나라가 亡한 것과 마찬가지로, 初期의 隆盛期와 後期의 衰退期로 區分될 수 있다. 即 國家의 隆盛과 馬產은 不可分의 關係에 있었으므로 國家에 衰運이 깃들면, 產馬도 衰退하고 產馬가 不進하면 國家의 運命도 기울어지게 되었던 것이니 筆者는 李朝馬政을 李朝初期부터 宣祖朝의 壬辰倭亂때까지의 發展期와 그 以後의 衰退期의 둘로 나누어 考察해 보고저 한다.

(2) 馬產의 發展과 衰退의 槪觀

가. 發展段階와 그 要因

麗末에 內憂外患은 더욱 甚해지고 西北邊境의 不安과 倭寇의 극성으로 國力이 衰微하여진 가운데 李太祖가 君臨하게 된 까닭에, 根本的인 思想的 革命은 아니었다 하더라도 嶄新한 氣分이 充溢하고, 모든 面에 意欲的이었고, 國運을 바로 잡으려고 努力하였을 것은 事實이다. 더우기 李太祖는 武官出身으로서 軍事 專門家였으므로 國防에 注力하고, 國基를 튼튼히 하여 外寇를 물리치기 爲하여 產馬를 奬勵하여야 하였고, 그러기 爲해서 藩殖飼養 또는 牧場建設等에 온갖 努力을 기우렸을 것은 疑心할 餘地가 없다.

勿論 後述하는 바와 같이 馬匹의 用途는 戰馬用 以外에도 그 範圍가 넓지만 封建的前 近代的 時代에 있어서는 軍用으로서의 用途가 大部分을 차지한 까닭에, 이것이 產業은 產業이로되 產業이란 槪念에서 벗어나다시피하여 軍部에서 이것을 管掌하게 되고, 畜產業이란 見地에서 볼때에는 歷史以來 近世에 이르기까지 馬產이 그 全部를 차지하였다고 하여도 決코 過言은 아니다.

外患으로 因한 過度의 國防力強化는 오히려 民生에는 苦痛을 加重한 結果가 될 수도 있는 것이지만, 馬產自體만을 갖고 보면, 太祖開國 以來 世祖代에 이르는 約 80年間은 李朝馬政의 黃金時代를 出現하였고, 다음 睿宗, 成宗 28年間은 別 變動없이 經過하였으나, 燕山君에 이르러 曠古의 暴政으로 民生은 塗炭에 빠지고, 그 後에

外患이 없었던 關係로 馬政은 相當히 弛緩하여 가다가, 宣朝때 壬辰倭亂으로 全國이 敵에 蹂躪當함으로서 馬產은 거의 潰滅하게 되어 버린 것이다.

따라서 燕山君때부터 壬辰亂까지는 事實上 馬產의 衰退期에 들어가는 것이다.

軍用 以外에 產馬의 必要性은 첫째 驛馬로서의 官의 遞信 交通의 役割, 民間의 乘用, 運輸用, 農耕用 等을 들수 있고 또 그밖의 用途로서 食用, 祭祀用, 守獵, 擊毬, 禮物賞賜用途, 對外進貢 等이 있다. 이 가운데서 對外進貢用이라 함은 當時 所謂 上國으로 섬겼던 中國(革命에 依하여 國名은 隨時 變更되었지만)에 對한 것으로 世宗三年에는 一萬匹을 바친 일이 있는데 이러한 中國의 要求가 우리나라의 產馬의 必要性을 刺戟하였기도 하였겠지만 그보다는 無理한 收奪이 產馬를 衰退로 이끄는데 더욱 크게 作用하였고 民生苦를 加重시키는 結果를 招來하였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宣祖朝때(世宗으로부터 約 150年後) 吏曹判書 ①李睟光은 ②「世宗朝進馬 一萬匹者 再五千匹者再令則 歲貢五十匹 亦僅充數 可見國初物力之完盛 非今日之所能及也」라 하여 世宗時代의 產馬의 隆盛함을 말하였지만 中國에 對한 進貢이 어찌 甚하였던지 當時 議政府에서는 ③「戰馬日減如此數年 則牛馬殆盡 弊將難救 誠國家之大患」라고 啓하여 產馬의 減退를 憂慮하기에 이르렀다. 貢馬, 驛馬에 關해서는 稿를 달리하여 論할 計劃이다.

以上 摘示한 條項 以外에도 馬產政策에 積極的인 影響을 끼친 要素로서 歷代國王들의 말에 對한 個人的인 關心을 들지 않을 수 없다. 이 事實은 어떤 意味에서는 다른 要素를 보다 더욱 重要한 役割을 한지도 모른다. 歷代王의 愛馬心과 말에 對한 知識의 程度를 史實에 依하여 살펴보면

咸興의 都連浦牧場은 李太祖가 開國하기前 高麗의 武臣으로 있을 때의 私有牧場이라고 傳하여지고, 이 牧場에서 優秀한 品種이 나왔다고 한다.

肅宗十五年 咸鏡道御史 李萬元의 筵啓에 ④「咸興 都連浦牧場 所傳 我太祖龍潛時 得神馬 於神井 以爲其地宜馬 始爲設場 (中略) 周回十五餘里 若或兩水崩頹 則不拘農時 動民修築 以此民不堪其苦 其近處 永興 末應島牧場 可以養馬千頭 即以都連浦馬匹 移放此則 事必便好矣」라고 하여 이 牧場이 閉鎖되기는 하였으나 如何間 李太祖가 여기서 神馬를 얻었다고 하고 所謂八駿馬라는 名馬의 이름이 傳하니 李太祖가 얼마나 말을 重視하고 사랑하였던가를 알 수 있는 것이다.

八駿馬에 關해서 좀 더 詳細히 言及하면 文獻備考 兵考 馬政編에 「太祖 開國時 所御馬八」이라 하여 橫雲鵲, 游麟靑, 追風烏, 發電猪, 龍騰紫, 凝霜白, 獅子黃, 玄豹等 八匹의 李太祖 愛乘馬를 말한 것인데

橫雲鵲은 女眞產으로 紅巾賊 討伐時에 타던 것이고,

游麟靑은 咸興產으로 海州 雲峰戰鬪때 타던 것이고'

追風烏는 女眞產

發電猪는 安邊產

龍騰紫는 海州에서 倭寇討伐때 타던 것이고

凝霜白은 鴨綠回軍時에 타던 것이고,

獅子黃은 江華煤島產으로 智異山의 倭寇討伐때 타던 것이며

玄豹는 咸興產 兎兒洞의 倭寇討伐때 타던 것이라는 것을 明記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 八駿馬를 紀念하기 爲하여 世宗大王이 護軍 ⑤安堅에게 命하여 그림을 그리게하고 成三問等이 그 製를 지었는데 이것을 八駿圖라고 한다.

이 八駿圖는 그後 兵火에 없어지고 傳하지 않지만 肅宗代에 이르러 다시 八駿圖를 그리고 龍飛御天歌를 실었는데, 肅宗 御製와 그序에 ⑥「歲乙酉 豫偶得古畫一軸 乃吳興 趙子昂八駿圖也」라 한 것을 보면, 安堅이 그린 八駿圖 以外에, 또 다른 八駿圖가 있어 이것을 보고 다시 본 떠 그린 것이 明白하다. 그리고 그 圖誌에는 「自古受命之主 方其創業之初 必有英雄豪傑 感會風雲攀鱗附翼 以輸其忠 至拾畜物之微 亦能乘時奮力以効其勞 高麗季主昏政虐 惟我太祖 勇智天錫 征討四方 當時所御馬 亦多 而空群迥出者八 豈非天

產龍種 興人一心托生死 而成大業者乎 尙論其功 奔走宣力之勞 固不當獨歸拾人 今我殿下 慨念不已 圖盡其形 以備觀覽 其不忘創垂之艱難 以戒持守之不易者 嗚呼至哉」라 하여 李太祖의 麗末에 있어서의 武功과 開國의 大業이 이들 八駿馬가 있었으므로 해서 可能하였다는 것을 讚揚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太宗은 말에 對하여 造詣가 깊고 特히 그 鑑定技術에 있어서는 當代의 第一人者였던 모양이다.

即 太宗十年(1410)에 明에 말을 進貢할때 太宗은 그 가운데서 親히 鑑定하여, 下列에 끼인 것을 뽑아 首位에 올려놓으니 보는사람들이 모두 異常하게 生覺하였으나,明의 成祖의 極讚을 받은 일이 있는데 이때 太宗은 近親에게 ⑦「擇駿馬辨人之才 豫當不讓拾古人」이라 하여 말 鑑定과 사람을 아는데 있어서 나에 뒤따를 사람이 없다하여 스스로 자랑하였던 것이다.

또 世祖는 비록 어린 端宗의 王位를 찬탈하였기는 하였으나, 그 後의 治世에 있어서는 功蹟이 많다는 것이 史家들의 定評인데, 馬政에 있어서도 李朝 歷代王中에서 가장 雄大한 抱負를 품고 施政한 結果 李朝時代뿐만 아니라 歷史上 가장 隆盛한 產馬의 黃金時代를 이룩했던 것이다.

世祖六年(1461)七月에 黃守身等을 牧場提調에 任命하고 黃海, 江原 兩道를 合친 巨大한 牧場을 建設하고저 諸道觀察使에게 다음과 같이 諭示하였다.

⑧「予欲 以江原, 黃海之地 並合爲 二大牧場 然不可以人易馬 今且令諸邑 各占一山 水草俱足 分處十匹 以至千匹 則何憂不成乎 卿速審某州某山限九月晦間 乃啓」

이러한 空前後無의 巨창한 計劃이 그대로 實施되었는지 與否는 史上 明白치 않으나 그의 馬產에 對한 雄志를 推測하고도 남음이 있다.

西鄕靜夫는 그의 論文에서 이 計劃이 實施된 것으로 推斷하고 있으나 筆者의 見解로서는 前記 諭示의 文脈으로 보나, 其後의 史蹟으로 미루어 보아 計劃대로는 實踐하지 못하고, 黃海, 江原 兩道에 人家村落에 被害가 없는 範圍內에서 數많은 大小牧場이 設立된 것으로 생각함이 可할듯 하다.

太祖가 그러했듯이 世祖도 在野時에 이미 유수한 駿馬를 所有하고 即位後에 이것을 唐의 故事에 依하여 그림을 그려서 後世에 傳하였는데 그 十二名馬는 다음과 같다.

⑨靖世驃, 流霞驛, 梨花驄, 王英虬, 凌空鵲, 逐風駒, 爾雲駬, 騰霧豹, 軼驚鴻, 翼飛龍, 載房麟, 照夜驥.

이와같이 李朝 初期에 있어서 歷代王이 產馬에 特別히 힘을 기울인 것은 이것이 國防上 또는 執權上, 前記 八駿圖誌에서 指摘된 바와 같이 優秀한 軍馬의 必要性이 絶對的이었다는 것도 事實이지만 太祖의 八駿馬, 太宗의 鑑馬術, 世祖의 十二名馬等의 事實은 個人的으로도 말을 얼마나 사랑하고, 말에 對한 學術的인 知識도 깊었던가를 알 수 있는 것이며, 또 이것이 產馬政策에 그대로 反映되었으리라는 것도 疑心할 餘地가 없다.

그리하여 睿宗 二年間을 거쳐, 成宗 25年間은 世祖時代의 產馬를 그대로 維持하고 內容을 充實히 하여왔던 것이다. 이와같은 事實은 成宗二十五年에 經筵官 兪好仁이 上奏한 글로서 充分히 立證된다. 即 ⑩「今命市馬拾野人 我國牧場多良馬 雖彼來獻 猶當却之 況市之乎」라 하여 當時 北方으로부터 말을 購入할 必要가 없을 程度로 國產馬가 優秀하고 많았다는 것을 알수 있는 것이다.

註① 李睟光(이수광) 1563(明宗18)生 號는 芝峰 일찌기 宣祖때 登科하여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西學을 導하고, 仁祖때 吏曹判書를 지내다.
② 增補文獻備考 卷 125 兵考 馬政 5面
③ 世宗實錄 29年5月 丙辰條
④ 增補文獻備考 卷125 兵考 馬政 20面
⑤ 安堅 李朝初期의 畵家 號는 玄洞子 八駿圖를 그릴때 護軍(五衛에 屬해 있던 正四品武官職)으로 있었음.
⑥ 同書 卷125 兵考 馬政 3面
⑦ 同書 〃 〃 〃 4面
⑧ 同書 〃 〃 〃 23面
⑨ 同書 〃 〃 〃 5面
⑩ 同書 〃 〃 〃 5面

나. 衰退過程과 그 要因

이렇듯 隆盛하던 馬產도 燕山君 以來 衰退의

徵兆가 깃들어, 宣祖朝의 壬辰倭亂을 當하게 되어 거의 滅亡狀態에 빠져버렸다.

燕山君의 暴政은 國民으로 하여금 極度의 不安과 恐怖속에 몰아넣고 酒色과 殺戮을 일삼았던 關係로 國防을 돌보지 않고 따라서 馬政에 있어서도 紊亂하였을 것은 두말할 必要도 없다.

더우기 同十年(1504)에는 저 惡名높은 採紅駿使란 것을 地方에 派遣하여 婦女와 함께 馬匹도 좋은것은 닥치는 대로 徵發하여 버렸다. 이와같은 事實이 馬產의 直接的인 衰退原因이 되었던 것은 疑心할 餘地가 없을 것이다.

그리하여 中宗 反正이 일어나기는 하였지마는 그 以後 壬辰倭亂이 일어나기까지 이렇다 할 業蹟이 없고 臣下들은 奸計와 謀略으로 政權 爭奪에만 熱中하여 國家大事를 그르쳐 壬亂을 自招하리만큼 國防을 疎忽히 한것을 生覺할 때 這間의 馬政이 어떠하였는가는 充分히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及其也 亂이 터지자 國土가 거의 全域이 倭의 手中에 들어가게 되어 各 牧場의 馬匹은 勿論, 民間의 私有馬까지도 좋은것은 다 強奪하였을 것이고, 牧場은 荒廢될대로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이다(三項 牧場의 設置와 그 政廢 參照).

그 後에 가서 光海君의 虐政이 있은뒤 仁祖反正을 거친 다음 孝宗은 丙子胡亂의 復讐로 北伐을 計劃한만큼 民心도 歸一하고 軍備를 서둘렀던 때라 어느程度 馬政이 回復하여 濟州島의 金萬鎰같은 사람은 萬匹內外의 莫大한 馬匹을 放牧하여 濟州島의 山野를 뒤덮을 程度이었고 孝宗이 肱역으로서 依持했던 ①李浣大將같은 이는 自己의 愛乘馬를 朝夕으로 親히 飼育하고 孝宗自身도 內廐에서 龍馬라고 後世에까지 傳하여 질만한 名馬를 기를만큼 朝野가 一致하여 產馬에 힘써 李朝產馬의 中興을 이루었던 것이다.

이리하여 曙光을 비치던 國勢도 漸時에 그치고 肅宗朝에 이르러서는 그 三十一年에 李寅燁의 啓에

「牧馬國之大政 近來馬政疎濶 濟州及諸牧場 馬種駑劣莫甚 誠爲寒心」이라 하여 馬政의 疎濶으로因하여 말이 退化하고 優良한 것이 없음을 恨歎하고 이어 그 原因으로

「國綱解弛 人不畏法 多以雜種 換去牧場中好品駿蹄不產」이라 하여 國政이 紊亂하고 사람들이 法을 겁내지 않아 官有牧場의 좋은것은 다 빼내버린 까닭이라고 하였고,

또 英祖五年에 吏曹判書 趙文命은 筵啓에서

③「近來馬政之虛疎 皆由拾爲民侵耕而然也 水草不足 故馬不蕃殖 不可許耕矣」이라하여 肅宗以後 牧場에 對한 規則이 더욱 紊亂하여 民間에서 官有牧場을 侵犯하여 耕作까지 하게 되고 또 同十二年에 判府事 徐命均의 筵啓에서

④「馬政有國之重 而近來馬政 極其虛疎 以匹數言之 比八十年前 反有不及」이라 하여 馬政은 더욱 疏濶해져서 馬匹數는 도리어 80年前인 孝宗末에 比하여 減少되었음을 指摘한바 있으나, 十一年後인 同二十三年에는

⑤「自古馬政國之大者 而近者馬政 可謂寒心」이라 하는 英祖의 傳旨가 내려진 것을 보면, 其間에 있어서 國法의 弛緩, 當路者들의 腐敗, 勤務怠慢等으로 馬政은 조금도 改善되지 못하고 衰退一路를 걸어온 것이 明白하다.

肅宗九年 朴世采의 疏에 依하면

⑥「耽羅以下 遠近諸島所畜養 會而計之 厥數不下數萬云云」하였는데 이것을 基礎로 推定하여 當時의 官有牧場의 頭數를 2—3萬(官有牧場)程度로 算定한다면, 李朝初期의 世宗, 世祖代의 盛況期에는 牧場數가 三倍以上이었으므로 이 事實만 가지고도 約 5—10萬頭로 推定할 수 있지 않을가 한다.

그러나 그以後 馬產은 衰退一路를 걸어 肅宗九年(1683)부터 約 120年後인 ⑦純祖五年(1803)十二月에 太僕에서 各道牧場의 馬匹頭數를 調査한바에 依하면 實數 8,337頭라 하였고 또 그로 부터 10年後인 同 15年에는 7,256頭로 調査報告되었다. 이와 같은 馬匹의 減少는 國防上 重大한 威脅이 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에 앞서 正祖七年에 備局은 當時의 大司憲 洪良浩의 上疏文을 引用하여 다음과 같이 狀啓를 올렸다.

⑧「即驢羊畜牧事也 驢之服乘 可代牛馬 羊之孳長 可備牲牷 則實是民生之利用 有國之緊需 私買之驢 公貿之羊 非不相續使价之行 而驢渡鴨水 多患

病斃 羊入東土 每致損耗 曾未見蕃殖之效 或由於風土之殊 牧養之失方 而抑亦羊需享祀 驢爲騎乘 皆取牡而不取牝 故無所孳育而然矣 風氣之殊 雖有彼此 牝牡之孳 豈無其理 先使灣府 貿來驢羊牝牡若干頭 驢則放牧於閑曠牧場 羊則分屬於西關各邑 依倣彼人牧法 而試令孳長 果能宜於畜養蕃其種類則 公私所需 利益必大 漸次多貿 以爲廣殖之道 亦合事宜」.

即 이에 依하면 그 前부터 驢와 羊이 中國으로부터 들어온 것을 알 수 있으나, 成果를 거두지 못한 것은 숫컷만을 들여왔기 때문이므로 지금 다시 驢羊을 들여와 驢는 말 代用으로, 羊은 소 代用으로 하자는 것으로 要約되는데 如何間 말과 소의 不足을 如實히 證明하고 있다. 그리고 只今까지의 馬產一邊到의 產馬政策의 變更을 意味하는 것이며 우리나라에서 愛用된 나귀의 歷史는 이때를 계기로 하여 展開되지나 않았는지 畜產史上 特記할만한 事項의 하나이다.

이리하여 憲宗, 哲宗, 高宗을 거쳐 純宗4年(1916)에 李朝가 終末을 告하기까지 馬政은 衰退의 度를 加하여 갔던 것이다.

以上 考察하여온 바와 같이 馬產의 衰退는 壬辰倭亂이 決定的인 原因이 되었지만 그보다도 長時에 걸쳐 產馬의 改良增殖을 不可能케한 根本要因은 中國의 橫暴한 馬匹의 強奪에 있었다.

그리고 또한 官紀의 紊亂, 吏道의 腐敗로 適切한 奬勵가 不可能하였고 馬產에 關한 專門家의 養成에 힘쓰지 않고, 技術者가 踐待받는 社會에서 그에 關係되는 業이 衰退하는 것은 오히려 當然한 일이다.

註① 李浣 1602年生 孝宗때의 名臣 訓練大將 孝宗의 北伐計劃의 主軸人物이었으나 孝宗의 승하로 뜻을 이루지 못하였음.

② 增補文獻備考 卷 125 兵考 馬政 18面
③ 〃 〃 〃 〃 21面
④ 〃 〃 〃 〃 26面
⑤ 〃 〃 〃 〃 〃
⑥ 〃 〃 〃 〃 〃
⑦ 〃 〃 〃 〃 13面
⑧ 〃 〃 〃 〃 27面

(3) 牧場의 設置와 그 改廢

自古로 그러했드시 李朝時代의 牧馬도 純全히 軍事產業이었고, 또 軍事面에서도 軍馬가 지닌 比率이 거의 絶對的이었던 關係로 國家的인 立場에서 民間馬產도 奬勵하였지만 國家自體가 牧場을 經營하고 軍馬供給에 있어서 萬全을 期하였던 것이다.

高麗初期에 設置된 龍驤(黃州)等 10個 牧場은 李朝에 들어와서도 繼續 管理하였을 것이라고 思料되나, 그 改廢의 來歷이 確實치 못한 것이 遺憾이다.

李朝 國立牧場 亦是 그 設立 改廢의 經過를 把握할 수는 없으나 太祖 開國初에 巨大한 箭串牧場(只今의 園藝試驗場 附近을 中心으로 한 徽慶洞 面牧洞一帶)의 設立을 비롯하여 高麗時代의 繼承한 것과 合하여 大小 159個所의 많은 牧場이 大慨 西南海岸의 島嶼에 設置되었던 것이다. 이와같은 多數의 牧場設立의 年代는 文獻에 記錄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것도 있으나, 다음에 引用하는 文獻에 依하여 그 大部分이(高麗때 것의 繼承도 있겠지만) 李朝初期 即 太宗代까지 또 어쩌면 적어도 世祖代까지는 設立 完了된 것으로 보인다.

仁祖十九年의 張維의 牧場圖面 119個所의 序文에,

②「宣廟中年 牧場之廢者 四十餘 因經壬辰之亂 群牧之凋廢 無足怪也(中略)

我國惟江原道無牧場, 京畿三十場有馬者十六 監牧官二員, 公淸道十場有馬者四 監牧官一員, 全羅道四十二場有馬者十四 監牧官三員, 慶尙道二十一場有馬者四 監牧官二員, 咸鏡道六場有馬者五 監牧官一員, 黃海道十場有馬者七 監牧官二員, 平安道四場 兵後皆廢, 摠之牧場百十九所 而有馬者四十六 廢者七十三 耽羅在海外 關西四場 爲遼民所占 箭串郊摠國都故今皆不圖」라 하여 當時의 牧馬場의 狀況을 數字的으로 把握할 수 있고, 또 文獻備考 兵考 馬政編의 附牧場 廢牧場條에 依하여 所在地를 밝힐 수 있게 된다.

于先 附牧場條와 廢改場條에 明記되어 있는 牧場數를 祥考하여 보면 京畿道 24場, 忠淸道 5場, 全羅道 32場, 濟州島 6場, 慶尙道 20場, 黃海道 7場, 咸鏡道 7場, 平安道 4場, 總計 105場에 當時廢場 54場을 加한 159個所가 되는데 이

數가 적어도 世祖年代까지 設置되어 壬辰亂까지 內容은 如何間에 數的으로 그데로 維持하여 오다가 壬辰亂中에 40個의 牧場이 없어지고, 그後 凋落을 거듭하여 仁祖十九年까지 사이에 다시 73個所는 名目뿐이고, 實際 牧島를 하지 않는 廢場이 되어 있었다는 것으로 解釋된다.

牧場一覽表(105個所)

京畿道(24)

① 江華屬場：鎭江場 信島 屋島 煤音島 彌法島 兆一場 長峰島 注文島 (8)

② 仁川屬場：龍流島 無衣島 薪佛島 (3)

③ 南陽屬場：大阜島 靈興島 仙甘島 召忽島 伊作島 小牛島 伊側島 佛島 楓島 立破島 (10)

④ 水原屬場：陽串也 洪原串 (2)

⑤ 陽性屬場：槐台串

忠淸道(5)

⑥ 瑞山屬場．大山串 (1)

⑦ 泰安屬場：利園串 遠西面禿津島 (2)

⑧ 洪川屬場：興良串 (1)

⑨ 沔川屬場：倉宅串 (1)

全羅道(32)

⑩ 興陽屬場．道陽場 折爾島 小鹿島 示山島 鹿島 卯叱島 (6)

⑪ 順天屬場：內羅老島 城頭串 外羅老島 禾太島 盖島 諸里島 白也串 突山島 白也島 狐島 狼島 點毛島 (12)

⑫ 樂安屬場：獐島 (1)

⑬ 海南屬場：黃原串 (1)

⑭ 珍島屬場：智力山 南桃浦 (2)

⑮ 康津屬場：薪智島 (1)

⑯ 靈光屬場：多慶串 荏子島 (2)

⑰ 羅州屬場：押海島 牛串島 長山島 慈恩島 智島 (5)

⑱ 務安屬場：加羅島 (1)

⑲ 咸平屬場：珍下山 (1)

⑳ 濟州牧

濟州牧：大靜三所 旋義二所 山屯 牛屯 乙丙別屯 淸馬別屯 (6)

慶尙道(20)

㉑ 晋州屬場：興善場 昌善場 赤梁島 (3)

㉒ 巨濟屬場：舊永登場 長木浦場 漆川島 加助島 九千場 舊助羅浦場 知世浦場 山達島 (8)

㉓ 固城屬場：三千唐浦場 海平場 錦山場 (3)

㉔ 蔚山屬場：魴魚津 (1)

㉕ 長鬐屬場：冬背串 (1)

㉖ 東萊屬場．絶影島 乭浦 烏也項 (3)

㉗ 金海屬場：金丹串 (1)

黃海道(7)

㉘ 海州屬場：延坪島 (1)

㉙ 康翎屬場：登山串 巡威島 (2)

㉚ 甕津屬場：麒麟島 (1)

㉛ 長淵屬場：白翎島 (1)

㉜ 豊山屬場：椒島 (1)

㉝ 殷票屬場：席島 (1)

咸鏡島(7)

㉞ 咸興屬場：都連浦 花島 (2)

㉟ 文川屬場：四訥島 (1)

㊱ 永興屬場：末鷹島 (1)

㊲ 洪原屬場：馬朗耳島 (1)

㊳ 端川屬場：豆彥台 (1)

㊴ 穩城屬場：莎草島 (1)

平安島(4)

㊵ 鐵山屬場：大串 椵島 (2)

㊶ 宣川屬場：身彌島 炭島 (2)

廢牧場一覽表(54個所)

京畿島(11)

坡州屬場：沙牧島 (1)

長端屬場：壼串 (1)

江華屬場：甫音島 松家島 (2)

仁川屬場：紫烟島 茅島 難智島 土也串 (4)

南陽屬場：德積島 昇華島 禿甲島 (3)

忠淸道(4)

泰安屬場：安眠串 薪串大小山 智靈山 (3)

洪川屬場：元山島 (1)

全羅道(27)

興陽屬場：赤尔島 平內伊島 沙日每道 所里島 大頭里島 小頭里島 多里島 白毛島 安島 悲見島 (10)

順天屬場．耳里島 大花島 小花島 四叱島 (4)

珍島屬場：占察山 夫之山 (2)

康津屬場：古爾島 (1)
長興屬場：來德島 得良島 帳內串 (3)
靈光屬場：甑島 古耳島 臨溜島 (3)
羅州屬場：箕島 安昌島 其佐島 (3)
沃溝屬場：簞食島 (1)
慶尙島(7)
巨濟屬場：閑山島 龍草島 (2)
固城屬場：葡萄島 (1)
漆原屬場：龜山島 (1)
熊川屬場：加德島 (1)
金海屬場：鳴旨島 古今丹馬城 (2)
麥海道(4)
海州屬場：龍媒島 甫音島 (2)
甕津屬場：昌麟島 (1)
長岡屬場：大靑島 (1)
平安道(1)
定州屬場：都致串 (1)

上記表에서 보이는 바와같이 牧場은 大部分이 西南海의 諸島嶼에 設置되고 內陸에는 極少數밖에 없고, 江原道에는 全然牧場이 없었다.

그리고 牧場의 分布를 보면 159個所中 平安, 黃海, 咸鏡道等 北部에 겨우 18個所 (廢場한 것 包含)이고, 그 나머지가 京畿, 忠淸, 全羅, 慶尙道의 西南海島嶼에 集中되었었다.

國初「李太祖가 北部를 重視하여 牧馬를 奬勵한 것은 同地가 일찌기 產業이 發達하고, 또 李太祖 自身의 經驗에 비추어 그 氣候風土가 養馬에 適合한 것을 認定한 때문인 것이라고」③西鄕靜夫는 그의 論文에서 言及하고, 世祖는 江原, 黃海道 一帶에 巨大한 牧場을 建設하려고 計劃한 일이 있는 것을 보면 北部地方이 오늘날의 常識과 마찬가지로 牧畜의 適地임을 朝野에서 認定하였던 것이지만, 當時의 牧馬는 主로 放牧이었던 關係로 內陸에 牧場을 設置함에는 그 經費와 管理의 不便이 많고 虎患이 甚한 關係로 逸散의 念慮가 없는 島嶼를 擇하지 않을 수 없게 된것이다.

仁祖七年(1629)己巳에 宋時烈은

④國之富以馬計之 我國馬政疎脫 且南方之馬 其性柔脆 難用於戰陣 凡南方牧場 皆移於西北 則所產可用 南方牧場 使民人耕作云云」의 疏를 올려 南部地方의 牧場產馬가 不良하고 北部產이 優秀함을 認定하여 南部所在 牧場의 廢止를 主張하였고,

英祖朝의 柳馨遠은,

⑤「按我國設牧場 皆於海曲洲島 而數至於百二十餘 其散漫零碎如此 又宜馬之地 莫如西北 而南方極多 西北反少 是措置之未盡 其當者也 (中略) 宜澤宜回處 展寬場陜百餘里 或數百里 幷諸場 而合設 其餘則罷以與民 一道無過一二場 又修西北牧場 並如其制 如是則 無零碎難理之弊 無處處擾民之弊 馬政易擧 而孳牧蕃盛 軍國之用 無憂不贍矣」라 하여 北部內陸이 產馬의 適地임을 強調하고 島嶼에 散在한 群小牧場을 廢合하라고 主張하였는데 오늘로 볼때 모두 達見이라 아니할 수 없다.

또한 그는 이어서

「今般場必在海島者 欲省其築砦之費也(中略) 又以虎豹之害爲慮」라고 하여 海島에 牧場을 設置한 緣由를 들고, 또 이것을 廢合한 對策도 아울러 論하였는데 이러한 建議가 어느程度 받아들여졌는지는 史上 明確하지 않으나 廢牧場中에서는 南部諸島의 牧場이 또한 大部分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 두 建議가 相當히 實踐되었던 것인지도 모른다.

註① 張 維(1587—1638) 李朝中期의 名臣 孝宗의 國舅이며 天文 地理 醫術 兵書에 能通한 學者
② 增補文獻備考 卷125 兵考 馬政 23面
③ 朝鮮農政史考 P604
④ 增補文獻備考 卷125 兵考 馬政 17面
⑤ 磻溪隨錄 兵制後錄 434面

(4) 產馬의 改良增殖

高麗末에 衰退하였던 馬產은 李朝初期에 놀랄만한 속도와 큰 規模로 發展시킨것은 前述한 바와 같으나, 이것은 牧場數나 ,馬匹의 頭數에만 限한것이 아니고, 改良에 있어서도 相當한 成果를 올려 駿逸한것이 많아서 北方馬의 輸入이 必要없을 程度에 達하였던 것은 前記 成宗때의 經筵官 兪存仁의 上疏에서 證明된다.((2)의 가 發展段階와 그 要因)

李太祖自身이 馬種改良에 얼마나 努力하였는

가는 端川邑誌에

①「太祖對御名馬凡八 謂八駿也, 其中二老馬放之本郡 本郡因爲取種孳長 二馬盖是渥佳神種 是故本郡牧場 世產超逸之足 是有名拾國中」에 依하여 窮察할수 있을것이다. 즉 太祖는 種馬의 改良은 무엇보다 良血의 繁殖이 急務임을 認識하고, 그 愛馬二頭를 端川에 種馬로 供給하여 端川으로 하여금 國中에서 名馬의 產地로 이름을 떨치게 하였던 것이다.

當時 좋은 "祖上에서 좋은 子孫이 生產되며, 子孫은 祖上을 닮는다"는 遺傳學的 知識을 產馬改良에 應用하여 多大한 成果를 올린 것이다.

太祖의 八駿馬는 그 가운데 二匹이 濟州島와 江華產이고 餘他는 女眞產二頭를 비롯하여 擧皆가 咸境道等의 北部地帶產이었던 事實은 北部地帶에서 良馬가 많이 產出하였다는 것을 立證하는 것이다.

李朝初期에 西南海上의 島嶼는 거의 牧馬場으로 變하다시피 되었으나, 良馬는 如前히 北部에서 產出되었으며, 全國을 通하여 外來種이라서 亦是 韃靼馬의 血液이 더러 利用되기는 하였으나 國產馬의 純粹繁殖에 依하고 壬辰亂後에는 地方的으로도 咸鏡道, 平安道等地의 優良種을 함부로 南部他道로의 流出을 禁止하고 이地域을 優良種馬產地로서 再建하려는 政策이 樹立된 것이다.

即 孝宗五年에 右議政 沈之源은 筵啓에서,

③「北馬出來者 亦有禁令而 今則京外北馬頗多云云」이라 하였고,

判尹 李浣은

④「北馬出來者 皆與其土人 私相結約 以藏踪出來之地 兩道察訪 雖欲禁斷 而誠難摘發 臣之愚意莫若分付 監兵使, 道內之馬 皆割左耳而標之 出來時現捉者 繩以重律 且京外有此標馬 許令人陣告, 仍給告者則庶可禁斷矣」이라 하니 「上問于大臣 俟從之」라 하여 北道產馬의 移動禁止策을 上申하여 實施케 되었지만 또 한편 同十年의 敎旨에는,

⑤「下敎于咸鏡監司 趙啓遠曰 北馬出來之弊 自前非不嚴禁 而未有着實擧行之事 稍好之馬 則不得在拾本道云 此事極爲寒心 鄕其各別飭嚴禁可也라 한것을 보면 生辰亂後에 禁令은 끝내 實効를 거두지 못하고 政府에서 意圖한바 데로 改良政策을 잘 遂行되지 못한듯 하다.

이것은 壬辰倭亂 前後 弛緩乃至 荒廢하였던 馬產政策의 整備再建過程에 있어서 前記 宋時烈等의 建議에 따라 良馬가 缺乏하여 反射的으로 일어난 混亂이었을 것이다.

宣祖代에 李珥는 種馬의 改良과 馬政의 刷新을 爲하여 馬籍을 整備하고, 牧場에 말을 잘 다룰줄 아는 善騎射者를 配置 賞罰을 嚴하게 하라고 上疏한 一句節에서,

⑥「廣貿唐馬 胡馬 亦以此法, 則達武者 不患無馬 而國有緩急之資矣」라고 論하여 唐馬가 胡馬(蒙古馬)의 輸入을 力說하고 있으나 當時의 國內情勢로보아 實行은 하지 못한 것으로 思料된다.

그리고 壬亂동안에 產馬事業의 荒廢는 戰爭自體에도 勿論 原因이 있지만 優良種은 日本이 掠奪하여 갔으리라는것도 쉽게 斟酌할수있는 것이고, 反面에 日本種이 들어와서 殘留한것도 많아 混血이 되었으리라는것도 生覺할수 있는것이다.

〔淸馬의 輸入〕

高麗時代에 있어서 主로 產馬改良은 蒙古馬(胡馬)에 依하여 遂行된것이어서 李穡으로 하여금 「吾東方馬有二種」이라고 할만큼 影響이 컸었고, 李朝前葉에 있어서도, 明에서 禮物로 받은 말, 其他 個人的인 密貿易으로 因하여 들어온것 등에 依하여 影響을 받은것은 事實이겠지만 적어도 品種改良을 爲하여 明이나 日本等의 隣接國家에서 公式으로 種馬를 들여온 記錄은 없다.

그런데 李朝中葉 顯宗三年(1662)에 大陸에 淸朝가 創立된 後 말의 貿易이 相當히 潤澤해져서 淸馬가 쏟아져서 들어왔다.

當時에 있어서도 말의 重要性은 모든 用途에 있어서 조금도 減少되지 않고, 도리어 增加하였음에도 國內에 優良한말이 드물었던 까닭으로 이와같은 現象이 일어나고, 또 國家에서도 必要性을 切實히 느껴 守令들의 潛買行爲 以外에는 多少 不法的인것까지도 默認되기까지 하였던 것이다.

右議政 金壽興은 顯宗十四年의 筵啓에서 다음

과같이 論하고 있다.

⑦「在前北路開市時 淸馬多數出來 其處武士輩 給價覓得 多有可用之馬矣 六鎭守令等 或以公物潛買 犯法者斷有禁令 而他國品好之馬 不必禁 其覓得守令潛買者外 依前勿禁 上曰依爲之」 이와같은 馬匹의 貿易은 勿論 國家에서 公式으로 한것 외에 그 地方의 軍人 또는 私人들에 依하여 相當한 數가 輸入되어 主로 軍用으로 하였으나, 그 價格이 엄청나게 비싸서 肅宗 即位年인 甲寅(1674)에는 淸馬輸入을 禁止하였다.

⑧「肅宗甲寅에 「停太僕貿馬 在前使節之行 太僕例爲貿馬 至是 正言 李宇鼎啓 以一匹之價 逾拾十家之產 貴遠物費財用 實非聖朝美事 請令停罷 從之」

라 한것을 보면 淸馬 一匹의 價格이 十世帶의 家產에 匹敵한 程度의 것이고, 國家財政이 이를 許容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國家에서 正式으로 貿易에 依하여 馬匹을 輸入하여 軍用으로 補充하는 同時에 改良을 試圖하였다는 그 事實은 李朝產馬政良史上 特記할만한 것이다.

그리고 同二年(1676)에 各道의 方物進馬之規를 廢止하여 民弊를 除去하는等 볼만한 政策들이 實施되었다.

다시 同十六年(1690)에는 다음에 引用하는 領議政 權大運의 奏淸에 依하여 禁止되었던 淸馬輸入을 緩和하게 되었다.

⑨「奏曰 自北路出來淸馬 雖不合拾內廐所用 而將士得以騎之 不必嚴禁矣 上曰 豫意亦然 北來淸馬 勿爲嚴禁」

이와같이 빈번한 政策의 樹立, 變更等은 產馬改良에 對한 努力의 一端이었음은 勿論이나, 同時에 當時의 國內馬產의 若憫相이 如實히 드러나고, 所期의 成果를 거두지 못하였다는것을 證明하여 주는것이다.

即 英祖十四年에 司僕僉正 金泰衍은 筵啓에서 「濟州馬種 視前劣小」라 하여 產馬의 府庫이던 濟州島產馬의 退化를 歎息하고 이어서,

「至拾駕轎馬 太半撻馬參用 誠爲未安」이라 하였고 다시 말을 이어,

「宋廷奎 爲濟州牧使時 伏請貿得僉馬數十匹 放牧取種而本寺物力不逮 未即擧行矣」이라 하여 濟州島馬의 改良을 目的으로 騸馬를 輸入할것을 計劃하다가 實行에 옮기지 못하였던 事實을 밝히고 있다. 다음에 또 그는,

「其後 海恩府院君 吳命恒 爲出寺提調時 陳稟分付平安監兵營 貿得騸馬 放牧于鐵山 炭島牧場 此場馬 自其後 比他爲勝云 可謂有効矣」라 하여 炭島牧場에 騸馬를 輸入하여 繁殖한 일이 있어 좋은 成果를 거둔것을 말하고 있다.

이것은 肅宗四年 司僕寺에서

⑩「以我國馬種 纖劣之 故不騸雄馬中 體大禾少者 及雌馬中 可合牸長者 隨所得貿來 平安道椵島所在馬 移放身彌島後 仍爲放牧于椵島 以爲取種之地 榻前定奪分付道臣矣 即接鐵山監牧官報狀則淸馬雌雄八十四匹 果爲貿得 來到本場云」한것을 指摘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때 淸馬(胡馬)의 輸入數는 84頭이었고 椵島가 種馬所로 指定된 것을 알수 있다. 그런데,

⑬「今此貿放胡馬者 本欲取種 而若因其移放使椵島體大之馬 如或數多致斃 則所得反不如所失(中略)今此貿得淸馬 姑先放養拾此島(鐵山府所管 大溪島) 以觀來頭牸長繁殖 然後漸次變通 移放他島事涉便當 以此分付道臣及本官何如 流之」라 하여 椵島附近의 大溪島에 于先 收容하였다가 其後에 椵島로 옮겨진 것으로 보이나 年代는 確實치 않다.

또한 이 意見書中에는 椵牧場의 旣存頭數가 約四百匹이었고, 他牧場에 比하여 馬匹이 훨신 體大하고 優秀하였었다는 事實이 椵島가 種馬場으로 認定된 原因이 되었다.

그리고 肅宗十四年(1708)에는 또다시 淸馬를 輸入하여 濟州島에서 繁殖하다가 附近 다른 섬의 牧場으로 옮겨진 事實이 있다. 이와 같은 淸馬에 依한 政策으로 어느程度 成果는 있었지만 淸國의 馬匹輸出禁止로,

⑭「淸馬는 더욱 貴重하게 되었다. 宮中을 비롯한 重要한 需要에는 거의 淸馬를 使用하게 된것이 國產馬를 漸漸 纖劣化하는 同時에 沒落하게 되어 버린 原因이되기로 하였다. 當時의 事情을 다음과 같은 文獻에서도 그 事實을 歷然히 考證할수 있다.

即 英祖는 그의 御馬院 御製記에서,

⑮「我國馬政 其甚迂潤 若非淸馬 何以備御乘 今則彼禁甚矣 馬政尤豈弛哉 昔之國初都連浦有名馬 以此觀之 名駿亦豈昔官 今無而然乎 盖由拾本寺之不飭 牧官之不勤(下略)」이라 하여 產馬의 不振은 司僕官들의 腐敗와 怠慢에 있다는것을 指摘하였다.

그리고 同三十一年에 李寅燁은 그의 狀啓에서

⑯「近來馬政踈潤 濟州及諸牧場馬種 駑劣莫甚 誠爲寒心 濟州是 我國冀北 國初則多以此 進貢中朝 祖宗朝亦皆以此島馬 御乘矣 今則 御乘俱是 彼國之馬 我國之馬 則絕無可合者」

이와 같이 馬產의 悲慘한 現實을 朝野에서 認定하여 改良에 若干의 努力이 傾注되기는 하였으나 國政의 紊亂으로 因하여 끝내 別다른 成果를 보지 못하고 말았다.

이리하여 馬種에 優劣이 區別이 없이 全國的으로 倭少한 李穡이 말한 鄕馬만을 남기게 되고 正祖年代를 前後하여 產馬政策이 變更(第1項)으로 驢가 많이 퍼지고 그 結果 騾가 生產利用되었다는 事實은 馬政史上 하나의 轉換點을 이룩한 것이라고 하겠다.

註① 增補文獻備考 卷 125 共考 馬政 19面
② 韃靼馬·(타타로 말) 蒙古馬와 同意
元이 亡한뒤 蒙古族의 一部가 興安領 西南地方에 세운 北元을 韃靼이라 하였으므로 그 地方의 말을 韃靼馬라고 한것임.
③ 增補文獻備考 卷 125 共考 馬政 7面
④ 同 書 〃 〃 7面
⑤ 〃 〃 〃 7面
⑥ 〃 〃 〃 23面
⑦ 〃 〃 〃 8面
⑧ 〃 〃 〃 9面
⑨ 〃 〃 〃 9面
⑩ 〃 〃 〃 10面
⑪ 〃 〃 〃 21面
⑫ 〃 〃 〃 22面
⑬ 撻馬…韃靼馬 即 蒙古馬를 뜻한것으로 보임
⑭ 同 書 〃 〃 11面
⑮ 〃 〃 〃 18面

(5) 牧養과 獸醫術의 發達

가. 牧養狀況

李朝의 牧馬事業은 高麗의 그것을 繼承發展한것이므로 馬匹의 飼養管理 技術에 있어서 根本的으로 다를것은 없다.

內厩馬가, 驛馬 其他 軍用 또는 士大夫家等의 個人所官馬等은 馬厩가 있고, 其他 飼貸에 必要한 施設이 되어 寒暑를 防止하였지만 一般牧場의 畜舍施設에 關해서는 巧事撮要養馬法에,

①「凡牧養 冬煖厩 憂凉柵 頭平繫行 相離稀闋云云」(奎章閣叢書卷7)하였고 또 太宗은 三年 三月에 司憲府에서,

②「往歲 死者甚多 欲作厩拾通風之地 以其生」이라 하여 馬厩位地와 構造를 論한것을보면 各牧場에 어느 程度의 畜舍같은것은 勿論 있었겠지만, 當時의 官私有의 牧場은 오늘날 우리가 生覺하는 式의 小規模的이고 모든 施設이 갖추어져 있었던것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想像할수 없을 程度로 大規模的이고, 粗放한 飼養管理方法이었다.

內陸에 設置된 牧場은 主로 四圍가 山으로 둘러싸인 盆地같은 곳을 擇하여 周圍에 簡單한 土담, 木柵程度의 施設을 갖춘것으로 보인다. 그 飼養管理狀態를 柳馨遠의 말에 依하여 살펴보면

③「牧場之馬 固無喂養之事 然每羣輪定一人看牧 又秋冬積芻造아 深雪時 使馬入아避雪 給芻吃之 然後 可致繁殖」하여 겨울에 눈을 避할 目的으로 臨時的인 幕舍같은것을 만들고 芻秣을 給與할 程度이었다. 그러므로 靑草期에는 放牧만을 하게되고 枯草期에는 눈(雪)이 깊지 않은 以上 放牧하여 이끼같은것을 뜯어 먹기도 하고 乾草,짚같은것을 主로 給與하여 越冬하게 되는것이다.

그러므로 南部地方의 눈이 많지 않은 곳에서는 이 假畜舍 程度의것도 없었을지도 모른다.

濃厚飼料로서는 콩, 조 같은것을 馬料로 使用하였지만, 牧場까지 定量을 給與하였는지는 疑問이다.

나. 獸醫學의 發達

馬產은 農業의 一部門으로 發達하여 온것이 아니고, 軍事產業으로서 發展한것이기 때문에 學術 또는 技術分野에 있어서도 農業과는 距離가 멀고, 또 이것이 動物인 關係로 生理的으로 植物產業인 農業보다도 人體와 그 現象이 가깝기 때문에 醫學 乃至 醫術에 從事하는 사람들이

그 一分科로서 家畜의 衛生을 다루게된것이다. 따라서 그 飼養管理方法도 獸醫學의 一部로 看做되고 牧養法等은 一般農事關係書籍보다도 獸醫關係書籍에서 比較的 具體的인것을 發見할수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獸醫學은 中國의 그것을 본딴 漢方醫學으로서 그 根源을 中國古代의 ④「伯樂의 經」에 두고 있다.

⑤「高麗末에 獸醫 또는 獸醫博士라는 官職이 있었고 李朝初 正宗元年(1399)에 新編集成馬醫方 및 牛醫方이 鄕藥濟生集成方에 附刊되었다. 이것은 宋元時代의 馬牛醫方書를 基本으로 하고 高麗代의 經驗方을 蒐集參酌하여 編纂한 것으로 現存文獻上으로는 우리나라에서 獸醫學의 體系를 세운 劃期的인 業蹟의 하나이다.

本書는 麗末과 李朝의 重臣 趙浚, 金士衡의 立案에 依하여, 當時 醫藥에 兼通하였던 權仲和 韓尙敬等에 依하여 編纂된 것이다.

이 馬醫方과 牛醫方에는 典醫少監 房士良의 序가 있고 馬醫方은 良馬相圖 良馬施之圓等을 비롯하여 五臟病證治 風門, 諸黃門 諸脹門 疥痕門 新病門等의 術法을 論하고 牛醫方에도 相牛法 眠疫門, 產病門, 蹄病門, 雜病門, 等 體系를 세우고, 또한 馬醫方中에는

① 東人經驗牧養法
② 東人經驗方 麴木散 治馬脾胃不調池瀉
③ 東人經驗 治脹滿方
④ 東人經驗 治馬疥

等이 牛醫方에는 東人經驗 治卒喘嗽等이 收錄되어 있는바, 적어도 麗末 또는 그 以前부터 中國의것의 模倣뿐만이 아니고 獨自的인 研究가 相當히 行하여지고 또 應用되었다는 事實과 함께 李朝에서 이것을 體系化하고 成書化하였다는 點에 重要한 意義가 賦與되지 않으면 아니된다.

그리고 本馬醫書안에 東人經驗牧養法이 실려 있다는 事實은 飼養管理分野까지도 獸醫學에서 다루었다는 것을 말하여주는 것이다.

그런데 이 册은 宣祖第三年(1580)에 全州府에서 開刊되고 그後 仁祖第一年(1619)에 다시 濟州에서 開刊되었다고 한다.

한편 文獻備考에 依하면,

⑥「韻玉曰 我光廟命撰畜牧書 先圖其形 次論其相 牧養治療 調習之法 無不備載 命李承召作序」라 하여 世祖때에 牧畜書가 發刊되었던것을 알 수 있고, 仁祖때에는 李曙가 馬經諺解를 完成하여 널리 頒布하였다. 이것은 難澁한 漢文으로 된 獸醫書籍인 馬經을 우리말로 一般에 알기 쉽게 번역한 것으로 獸醫術의 前進에 一大 계시가 되었다.

⑧張維는 그 序文에서

⑨國家旣牧之政 皆轄拾岡寺 完豊府院君 李公曙爲提調 念馬病之難治 而馬醫之懵拾術也 旣鋟行馬經四卷 又輯節其要義 譯以諺語 剖厥而廣布之云云」하여 獸醫術의 知識이 貧弱하고 또 그에 關한 知識의 授受가 漢文書籍으로서는 一般이 쉽게 解得하지 못함으로 이와같이 企圖한것을 말하고 있다.

또 이보다 먼저 世祖六年에 醫經 및 諸書의 養牛法을 抄錄하여 醫生四人으로 하여금 이것을 習得케 하고 ⑪徐居正에 命하여 馬醫書를 編輯한 일이 있는바 이러한 書籍들은 年代的으로 오랜 것을 바탕으로 하여 그間에 얻은 새로운 知識과 經驗을 蒐集添加한것으로 보인다.

世祖는 歷代王中 馬產분만 아니라 獸醫學發展에도 많은 業蹟을 남겨 놓았다.

그리고 成宗十年(1479)에 都心帥 ⑫尹商弼이 建州를 征伐할때 이제까지 칡을 엮어 말에신을 신기던 것을 처음으로 쇠붙이로 蹄鐵을 製造着用하였는데 이로써 蹄鐵을 "代葛"이라 부르게 되었다. 이러한 創意와 研究는 우리 產馬技術史上 빛나는 業蹟의 하나이다.

乘用 其他用途上으로의 調敎術은 勿論 去勢術도이미 相當히 發達하였으며 年令鑑定術로 齒牙의 換生 磨滅狀態에 依하여 科學的으로 研究 應用되었다.

即 巧事撮要에

⑬「一才駒齒二, 二歲駒齒四, 三才駒齒六, 四歲成齒二, 五歲成齒四, 六歲肉牙生, 七歲角區缺, 八歲晝區如一, 云云」라 하여 三十二歲까지의 狀態를 詳細히 記錄하고 있는 것이다.

다. 治療技術

李朝에서도 麗制에 準하여 馬政을 實施한 關

係로 如前히 獸醫 또는 獸醫博士라는 官職이 있었을 것이라고 推測되나 文獻에 確實한 記錄이 없다. 다음과 같다.

그러나 李朝初에 產馬가 旺盛한 時期에 있어서 그 衛生에 特別한 關心과 施策이 있었을것은 疑心의 餘地가 없는 것이다.

그 治療方法에 있어서는 針刺를 主로 하고 處藥, 攝生等에 依한 것인데 그 例를 두서너개 들면

⑭治馬不進水草方(食滯 消化良症)

鷄卵一介 去殼取水 直油三合 淸淺三合 熊膽一錢半 大蒜一顆 爛研豆淋酒一升和 空心灌之愈 朝灌則至夕 告與草料 飽後少與水 一斗許 徐徐飮之

治馬大小便不通(便秘)

眠起欲死 須急治之 若不急治斃 以脂或油 塗人手 探穀道 去結屎 又以鹽 納溺道中 溺出便差

治馬小便不通(利尿)

消石一兩 研朴消 研木通 牽牛子 各二兩爲末 同溫水 灌一再 未通再灌之

治馬疥法(疥癬)

蘭茹菜蘆蕨蠶仙等 分細末 和如淡粥 塗之 又方 層層木油 塗之 又方 生漆木切 作束如炬以火燒取油 塗疥瘡 一二度 雖積年疥瘡見效.

以上의 諸處方例는 비록 漢方醫的方法이기도 하나 當時로서는 相當히 進步된것이 었고, 이에 對한 研究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는것을 推則할 수 있는것이다.

한편 傳染病에 對한 對策으로서는 藥治도 하였을 것은 鄭若鏞의 牧民心書에도 그 處方이 있는 것으로 보아, 能히 짐작할수 있으나, 어느程度의 效果를 거두었는지는 疑問이고, 이러한 疾病에 對해서는 古代의 觀念 그대로 그 原因이 魔鬼 또는 陰陽五行에 關聯된 것으로 解釋되므로써 防疫에는 主로 呪禁的方法이 行하여 졌으리라고 生覺된다.

北方과의 往來가 甚하였던 關係로 鼻疽, 炭疽等의 傳染病이 가끔 蔓延하였으리라하는 것은쉽게 짐작할수 있다.

高麗太祖때 부터 ⑮馬祖壇을 設立하여 馬神을 守護한다는 말의 祖上이라고 하는 天駟星을 祭祀하는 風習이 있었다.

이것은 李朝에 繼承되고 馬政을 重視하고 말에 感謝의 뜻을 表하는 意味도 있었겠지만 말의 疾病의 豫防 및 終熄을 國家에서 祈願하는 일까지도 하였을 것이다.

이 壇은 넓이가 九步 높이 三尺으로 四方으로 出入하는 층계가 있었다. 王이 臣下로 하여금 仲春 吉日을 擇하여 祭祀 지내도록 한 것이다.

李朝때는 東大門밖에 이를 設置하여 高麗때와 같이 하였으며, 189年 甲午更張때 廢止되었다.

註① 南都 李朝初期馬政考 88面
② 同上
③ 磻溪隨錄 兵刻後錄 437面
④ 伯樂, 中國古代의 名獸醫 馬師皇叶 같이 獸醫의 始祖로 指稱됨
⑤ 金斗鍾 韓國醫學史 312面
⑥ 增補文獻備考 卷 125 兵考 馬政 23面
⑦ 李曙 158年生, 孝令大君의 後孫, 號는 月峰 仁祖反正때 靖社功臣 司僕 提調
⑧ 張維 仁祖때의 名臣, 孝宗의 國舅, 벼슬이 右議政에 이르고 醫術에도 能通하였음
⑨ 同書 7面
⑩ 西鄕靜夫 農政史考 310面
⑪ 徐居正, 李朝初期의 學者 官은 贊成에 이름, 東國通鑑에 著者
⑫ 尹弼商, 成宗때의 相臣, 左議政으로서 都元帥가 되어 明의 建州征伐을 돕고 後에 尹妃, 廢妃事件으로 燕山때 被殺
⑬ 切切事撮要 238面(南都 李朝初期 馬政考89面)
⑭ 同書 240面(〃 90面)
⑮ 面國史大辭典 (〃 457面)

(6) 馬政制度의 變革

馬政은 古來로 軍國의 重事이었던 만큼 一般畜產 또는 農業과 分離하여 兵曹에서 管轄하였다.

李朝에서 麗制를 踏襲하여 太祖元年에 主務官廳으로서 司僕寺를 設置하였고, 司僕寺는 職制上으로는 兵曹에 所屬되어 있었으나 事實上으로는 輿馬, 廐牧에 關한 일을 맡아 보는 獨立官廳의 구실을 하였다.

처음 ①司僕寺에는 正三品衙門으로서 判事二員 鄕 二員, 少鄕 二員, 主簿 一員, 無主簿 一員, 直長 二員의 官員을 두어 馬政에 關한 事務를 管掌하다가, 世祖때에 이르러 議政과 判書(大槪 兵判)가 兼任하는 提調 二員을 두고, 專任으로

서는 正 一員, 副正 一員, 僉正 一員, 判官 一員, 主簿 二員, 兼司僕 五十員으로 大幅 規模를 擴張하여 世祖의 產馬에 對한 熱意를 制度上에도 如實히 나타내었다.

其後 燕山主때 僉正, 判官, 主簿 各一員 直長 副直長 各三員, 奉事 四員, 副奉事, 五員, 參奉 七員을 增員하여, 다시 中宗初 職制改編에 있어서 副正을 없애고, 雜職으로서 安驥, 調驥, 理驥, 保驥, 各 一人, 理馬 四人, 馬醫 十人, 牽馬陪 十一人, 吏屬書吏 三十人, 庫直 四人, 大廳直 一名, 使令 十一名, 軍士 二名을 두어 下級吏屬의 定員이 많아 졌는데, 畜產技術에 關係되는 所謂 技術職이 이 末端雜職에 屬하게 되었다.

即 安驥, 調驥, 理驥, 保驥等은 말의 調敎등 訓鍊을 맡아 보던 職인듯 하고, 理馬와 馬醫는 다같이 衛生 治療를 맡아보던 것으로, 理馬는 品階上 馬醫의 上位에 있었다.

그런데 中宗以前에는 馬醫나 獸醫라는 職名이 司僕寺官制에 나타나 있지 않으나 獸醫術의 發展과 治療를 等閑히 하지 않았음은 勿論이다.

그리고 外官職으로서 高麗의 馬畜滋長別監을 代身하여 監牧官制度가 國初부터 生기고 이것은 大槪 地方의 僉使, 萬戶等의 武官, 또는 守令들의 兼職이 었고, 所屬各牧場의 監督과 蕃殖 育成의 助長을 任務로 하고, 司僕司에 屬한 官品이기도 하나 兵馬節度使인 地方長官(監司)의 監督下에 있었다.

全國 ②監牧官의 定員은 國初에 京畿道 五名(江華, 長峯島, 水原, 南陽, 仁川) 忠淸道 一名(瑞山) 慶尙道 三名(東萊, 晋川, 蔚山) 全羅道 八名(興陽, 順天, 羅州, 智島, 薪知島, 珍島, 荏子島, 濟州) 黃海道 三名(海州, 長淵, 豊川) 咸鏡道 三名(咸興, 端川, 穩城) 平安道 一名(鐵山) 等 二十二名(補 二十四名)이었고, 濟州島에는 本是 東西阿幕이라는것이 있었다가 太宗八年에 처음 監牧官을 두게 되었다.

이와 같은 制度는 宣祖代를 지나 光海君에 依하여 廢止되고, 地方守令으로 하여금 兼察케 하였을 뿐이 였는데, 仁祖六年(1628)에는 馬政의 重要함에 鑑하여 다시 監牧官制度가 復活되었다.

그러다가 高宗 光武二十一年(1884)의 行政整理에 依하여 京畿道의 南陽, 仁川, 咸鏡道의 端川監牧官이 廢止되었다.

그러면 現業場인 各牧場의 機構는 어떠 하였던가?

③各牧場은 牝馬 一百匹, 牡馬 十五匹로써 一群을 編成하고, 各群마다 群頭(場長格) 一人, 群副(副責任者) 二人 牧子(牧夫 또는 牧童) 四人式을 配置하여, 三年平均 50%의 生產育成率을 目標로 하였다. 그러니 結局 牧夫一人이 25頭의 頭의 牝馬와 4頭의 牡馬를 管理하게된 셈이고, 全體的으로 85%以上의 育成率을 올리면 纛頭는 千戶, 百戶等에 官職에 나아가고, 遺失馬는 辦償하고, 生產率 30%未滿일 境遇에는 監牧官이 罷免되게 되었다.

官制一覽表

共曹(判書 正二品)

司僕寺(提調 正一品)—正(正三品)—副正(從三品)—僉正(從 四品)—判官一員(從 五品)—主簿二員(從六品)—雜職—安驥, 調驥, 理驥, 保驥(各一人)

理馬	四人
馬醫	十人
牽馬陪	十一人
吏屬書吏	三十人
庫直	四人
大廳直	一人
使令	十一人
軍士	二人

監牧官
- 牧場(纛頭) 令15 牛100
  - 副纛頭 令4 牛50
    - 牧子 令2 牛25
    - 牧子 〃
  - 副纛頭 令4 牛50
    - 牧子 〃
    - 牧子 〃
- 牧場

註① 增補文獻備考 44冊 卷 222 職官考 20面
② 同書 46冊 卷 235 〃 外務職2 10面
③ 同書 46冊 卷 125 兵考 馬政 27面

(7) 要 約

筆者는 本論文의 題目밑에서 三國以前(畜產學

會誌 第2號)과 高麗時代(畜産學會誌 第3號) 그리고 李朝時代의 三期로 區分하여 考察하였다.

우리나라의 馬匹이 古代로부터 有名하였든 것은 中國文獻을 通해서 大綱알수 있으나, 三韓時代以前의 것은 그만 두고라도 新羅時代의 그 찬란한 文化로써 馬政에 關한 史蹟을 詳細히 傳하지 않음은 遺憾千萬의 일이며 高麗時代에는 불만한것이 苦干있으나 亦是 仔細치 못하다. 그런데 李朝時代에는 馬政에 關係되는 記錄은 相當히 많다. 그러나 이것을 한꺼번에 詳細히 論하기에는 힘에 겨운 일임으로 그 大綱을 살펴본데 不過하다.

要컨데 新羅時代는 그以前의 散慢하였던 産馬를 組織的으로 動營하는 馬政의 建設期였고 高麗에서는 이것을 이어 받아 發展시켰으나, 末期에 와서 元의 橫暴로 衰微하였다가 李朝初期의 史上類例없는 馬産의 全盛時代를 現出하였다. 그러나 이 亦是 明의 強盜的인 奪取와 壬辰倭亂으로 因하여 드디어 再起不能의 廢退狀態에 빠져 國初와 같이 回復을 보지 못한채 李朝의 終焉을 맞이 하였다.

우리나라에서의 馬匹의 用途에 있어서, 農耕肉食用等으로 利用되지 않은 것은 아니나, 蒙古滿洲, 日本等의 그것과는 全혀 趣旨를 달리하여 아있는 액의 배제에 극히 유리하다.

一時的이고 補助的手段에 끌여 버리고, 主로 軍用에만 利用하였기 때문에 確固한 産業的基盤을 갖지 못하고 國有牧場이나 士大夫들의 專有物이되어 生産的이 아니고 消耗的인 事業이 었던 까닭에 그 興亡盛衰의 巾과 度가 甚하였다고 볼수있다.

實學이 賤視되고 空理空論에만 陶醉하던 우리나라 封建社會에 있어서 馬産에 關한 學問의 發達이 遲遲不振하였음은 오히려 當然한 일이며 馬政을 管掌한 大小官吏들은 畜産에 關한 全혀 門外漢인 官吏들이 었고, 畜牧이나, 獸醫에 關한 技術만으로는 出世하지 못했던 關係로表面的인 國家政策의 如何에 不拘하고 根本的으로 馬匹의 改良 利用等에 關한 研究 意慾이 不足했고, 또 그것을 可能케 하는 素地가 마련되지 못하였다.

이리하여 우리나라의 馬産業은 예로부터 名産地로 알려지고 氣候風土도 適合하였음에도 不拘하고 밖으로는 外寇事大等으로 시달리고 안으로는 封建的인 制度 國政의 亂脈 專門學術과 技術의 貧困等으로 悲慘한 歷史를 되풀이하여 드디어 全國의 馬匹의 數와 質은 餘地없이 떠러지고 말았다.

〔附 記〕

本稿는 李朝末期까지로써 一旦 擱筆하고 其以後의 것은 他日 續稿를 發表할것을 附言하여 둔다.

上記에서 보는바와 같이 子宮內膜炎은 여러가지 原

<筆者=서울農業大學敎授>

—(41頁에서 계속)—

본증에 있어서 대개 자궁을 세척해도 감시후에 膿이 모이기 쉽기 때문에 Albrechtsen氏는 자궁내에 고무관을 끼어 이것을 자궁질부에 고정시키고 그끝을 외음부외에 내놓아서 2~3주일동안 계속적으로 누출시키며 수시로 0.1% CuSO4 용액으로 세척해서 좋은 결과를 보았다고 한다. 이렇게 하여 漏出되는 膿이 감소되어 자궁수축력이 일어나면 Physiological saline soultion으로 세척한후에 Lugol's solution을 注入한다.

※ 2年間 不姙된 乳牛의 치료경위

병명—만성카다르성 자궁내막염(Chronic Catarrhal Endometritis)

치 료—1號 乳牛는 난소질환을 갖고 있어서 P.M.S. Hormone 제를 사용하여 난소질환부터 처치한후 1號 2號 모두 Physiological saline solution에다 Terramycin 250mg을 Mix 해서 일주일 간격으로 총 5回 세척하였다. 그리고 세척후 Mastol-u(이약의 성분과 제조방법은 공개할 수 없음)을 2回 注入함으로서 完治를 보았으며 完治後 人工授精 2回째만에 受胎成功을 보아 비로소 만 2年만에 不姙상태에서 受胎成功으로 姙娠牛가 된 것이다.

結 論

因에 의하여 유발되는 것이나 주로 우리나라에서는 불결한 사양관리와 불충분한 사양관리로 인한 母體쇠약으로서 오는 難産의 결과에서 子宮內膜炎을 초래하는 경향이 많다. 이로 인해 오는 酪農의 손실은 정말 지대한 것이다. 그런고로 이러한 손실을 막는 길은 철저한 豫防을 하는길 뿐이다. 자궁내막염의 예방책으로서는 難産時나 帝王手術後등의 諸산과수술이나 助産術後에는 반드시 後産정체나 子宮內容物을 完全히 제거한후 Bisol坐藥이나 기타 抗生物質로서 된 坐藥 2~3個를 자궁내에 투여하든지 분만후에 Physiological soline salution으로서 자궁을 세척해 주는것이 이상적이라고 필자는 본다.

그리고 근간에 보면 子宮內膜炎 治療를 爲해서 일반 공개업수의사들이 무경험으로 인한 불확실한 처치로서 오히려 더 악화시키는 경향이 많다. 子宮內膜炎의 치료는 子宮頸管을 통해서 세척기나 약액주입기를 삽입시켜야 하기 때문에 이계통에 능숙한 수의사나 수정사가 아니면 오히려 경관을 상하게 하여 자궁경관염을 초래시켜 더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子宮內膜炎을 앓는 젖소를 갖었을 때는 반드시 권위있는 분으로서 유우를 많이 취급해본 수의사에게 의뢰해야 할 것이다.〈筆者=大邱畜協人工授精師〉